

##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HOT  
ISSUE

# 육계 유통 과거형태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

### 닭고기 적정가격이 소비자에게 전달돼야!

#### '통큰치킨'의 교훈

우리는 2년전 '통큰치킨'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L마트에서 치킨 1마리에 '5,000원'을 하루에 300마리 한정 판매에 들어간 적이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는 물론 전국에 있는 모든 치킨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일반 치킨점에서 1만원 이상에 판매되는 치킨 한 마리가 반값도 안 되게 판매되면서 중간유통마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기에 충분했다. '통큰치킨' 사건은 중간 유통인들과 동네 치킨점들의 거센 반발로 1주일도 채 못가 중단하는 해프닝을 연출하였다. 당시 다른 마트에서 판매되는 치킨 가격이 7,000~8,000원이다 보니 '5,000원'은 마트의 상술로 볼 수 있었으나 '통큰치킨' 사건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른 치킨에 대한 가격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이처럼 닭고기 유통구조에 맹점이 있다는 의혹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부터 지속되어온 장기 불황으로 최근 산지 육계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으며, 급년 무더위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격상승 이외에는 추석 특수조차 누리지 못하면서 농가들은 제대로 된 수익을 챙기지 못하는 게 아닌가 우려의 소리가 높다. 그래도 유통구조는 전혀 변화

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 중간유통들의 덤핑관행

건국대학교 윤효직 교수는 '계육의 유통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육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생산된 육계를 적정가격을 최종 소비자에 최소 비용으로 유통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과연 우리나라 육계유통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 육계산업은 유사계열까지 포함한다면 95% 정도가 계열화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생산자는 계약관계에 의해 닭을 계열사나 중간 유통을 통해 판매를 한다. 여기에서부터 가격의 덤핑이 일어난다. 중간 유통인들은 생산자와 구매자의 중간역할을 하면서 시세의 등락이 있을 때를 이용하여 차액을 챙기기도 한다. 지난해 산지가격의 DC폭이 (사)대한양계협회 발표가격에 비해 kg당 400~500원까지 나면서 다수의 농가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는 육계유통의 큰 맹점이 아닐 수 없다.

#### 닭고기 유통마진 적정하게 이루어지나?

육계의 유통단계를 보면 산지농가에서 사육된 육계는 통상 계열회사나 대형유통회사에서 수집하게 되는데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된

다. 이런 다단계적이고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최종 소비자 가격은 산지 시세의 3~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마리당 15,000~16,000원이라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회사에서는 프리미엄 닭, 고급 식용유로 튀긴 닭이라는 홍보를 통해 이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15,000~16,000원 주고 닭을 사먹는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무척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통큰치킨'처럼 '5,000원'은 아니더라도 거품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것이며, 밀려오는 수입제품과도 차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축산업계(한우의 경우)의 유통마진이 40% 정도 되는 것으로 발표된 적이 있는데 이와 비교해 볼 때 치킨업계에서는 폭리를 취해도 너무 취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다.

채소나 수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닭고기 등 육류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산지시세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높게 치킨 가격이 유지된다면 아무래도 소비 감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져

올게 자명하다.

#### 건전한 육계유통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가격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간유통인들의 시세차익을 노린 가격장난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대한양계협회에서는 농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제 거래가격을 발표하고 유통업체들은 이를 따라주어야 하며, 도계 후 거래 가격은 소비자들의 수요공급에 맞춰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가격이 제시되어야 한다.

육계농장에서도 보다 경쟁력 있는 사육원가를 만들기 위해 사육성과 도계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좋은 상품은 좋은 원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도계장에서는 가동율 증대를 위한 외형 키우기 보다는 질적인 성장으로 목표를 전환함으로써 출혈매출에 따른 손실 보전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계열화사업과 조화를 이뤄 합리적인 산지시세는 물론 소비자 가격이 도출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사)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장 김동진

## 닭고기 자조금 거출기준 및 납부절차

닭고기 자조금은 2009년 6월 1일부터 육계, 삼계, 토종닭, 육용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농가직접납부  
도계수를 기준으로 농가가 직접 자조금 납부, 자조금 송금 후 관리위원회로 연락 필수

거출금 징수 위탁  
수납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 (수납기관은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사에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 제 19조제2항)

거출금 송금  
수납기관 또는 농가가 직접 관리위원회에 납부 (수납 익월 20일 까지)

거출금 징수  
수납기관 : (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 징수)

고지서 발송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 (도계장)

[거출시작일]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수납기관] 전국 도계장 대표자

[거출금액] 육계 5원, 삼계 3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수당)

[농가직접납부 계좌번호] 농협 301-0017-6070-01 (예금주 :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농협중앙회 가금특수팀 송금석 팀장

농협중앙회에서 24년간 몸담아 온 송금석 팀장은 축산물이 머지않은 미래에는 무기화 될 수도 있다며 국내 축산업을 지켜야 한다는 말로 운을 뚫었다.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내축산환경이 나날이 위축되는 현실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90% 이상의 계열화가 진행된 양계산업의 보호는 더욱더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양계산업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거대자본을 가진 외국계 닭고기 회사가 국내 닭고기 회사들의 주식을 사들여 국내의 닭고기 생산을 차단하면 닭고기를 수입해 먹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도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송금석 팀장은 닭고기산업의 집중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다양한 닭고기 생산과 판매 여건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닭고기는 한 달여 만에 출하가 되는 만큼 제품회전률도 빨라 외국 거대자본의 침투도 쉬워 더욱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도 전했다.

다양한 국내산 닭고기 제품의 소비촉진이 최고의 방어막이 될 수 있는 만큼 구구데이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구구데이 페스티벌'의 주관사로 나섰던 농협중앙회의 송금석 팀장은 이번 행사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닭고기 소비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송금석 팀장이 '2013년 구구데이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닭과 병아리 모양의 '토피어리'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인터뷰

지속적인 닭고기소비촉진을 유도한 '2013년 구구데이 페스티벌'

'7색7미 발효 맛닭' 개발 및 동시에 진행된 전국행사 통해 홍보효과 톡톡히 거둬 농협목우촌, 하반기(7월)부터 변경된 닭고기자조금 거출 방식에 적극 동참 중

■ 이번 구구데이 페스티벌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셨는지요?

닭고기 소비를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는 닭강정이 한참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다가 어느새 그 열기가 식어버렸습니다. 닭강정이나 후라이드치킨 같은 닭고기 제품이 외식위주로 인기를 끌다보니 생명주기가 짧아 닭고기제품의 인기가 금세 사라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를 극복하고 가정 내에서 닭고기의 꾸준한 소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조리 가능하고 웰빙시대에 건강도 챙길 수 있는 '7색7미 발효 맛닭' 레시피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구구데이(9월 9일)는 닭고기를 먹는 날이라는 소비자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통큰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닭고기 소비촉진을 이끈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구구데이송'을 개발해 구구데이에는 닭고기를 먹자는 연상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 이번 대회의 성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대회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 국민에게 구구데이를 각인시킬 수 있었던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뿐만 아니라, (사)대한양계협회와 함께 강원도, 충청남도,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에서 동시에 구구데이 행사를 진행하며 전국적인 행사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각종 일간지나 경제신문, 인터넷 매체, 지방지에서도 구구데이가 소개되는 언론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건강미인' 클라라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소비자가 '닭고기를 소비하면 건강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이끌어 내고, '구구데이송'을 통해 '9월9일은 닭고기 먹는 날'이라는 연상작용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각인효과를 통해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닭고기 제품의 소비촉진을 유도했다고 봅니다.

■ 양계산업과 관련하여 농협목우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양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모델 제시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양계산업은 계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현재 90% 이상 진행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민간자본형 계열

화 사업에 폐단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 결제로 3~6개월의 어음을 준다든지 계약농가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형태도 존재했습니다. 계약농가 입장에서는 정성들여 키운 닭을 출하하면 그때부터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계열업체로부터 3~6개월 어음을 수령한 계약농가는 계열화업체가 부도가 나는 건 아닐까, 혹은 제대로 현금을 받아낼 수 있을 까라는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고자 농협중앙회에서는 협동조합형 계열화인 '농협목우촌'을 선보였고 대금결제를 현금으로 하고 결제기간도 몇 주일 내로 단축하는 등 당시에는 파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농협목우촌이 이런 모범적인 계열화사업의 모델을 제시하자 민간자본형 계열업체도 계약농가와 계약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협목우촌은 하반기(7월)부터 변경된 닭고기 자조금 거출 방식(육계 5원)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농협중앙회 가금특수팀에서는 어떤 업무들을 수행하는지 궁금합니다.

가금특수팀이 담당하는 업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양계, 산란계, 오리, 양봉, 양육산업 등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조합원(양축농가)을 지원하고 육성하며 지역과 품목조합이 고유목적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문지식이 부족했던 농민들에게 축산기술이나 운영과 같은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농민들도 전문지식 습득이 빠르고 계열 회사에서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닭고기의 소비촉진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닭고기 요리강습회나 전국 농협지사를 통한 소비촉진 행사나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일기불순 등으로 국제 곡물가격은 불안정하고 환경문제 등으로 국내 축산환경은 위축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협중앙회와 가금특수팀은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대안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또한 양계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농가의 실질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연중 닭고기 소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소비촉진 활동도 펼치며 국내산 닭고기의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H O T  
ISSUE

0 0 2

# 성화식품(주) 충청지역 농가 사육비 인하 관련 분쟁조정 신청

## 회사와 농가간의 갈등 심화

육계계열화업체인 성화식품(주)이 위탁 사육농가들과의 계약서 변경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의 중재명령에도 불구하고 '농가협의회'를 임의로 구성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8월 5일 성화식품(주)에서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육비 인하가 담긴 계약서를 농가들로부터 변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성화식품(주)은 농가협의회 임원진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2~3일을 남기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발해 충청남도지역 31개 계열 농가는 충청도청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회사측은 곧바로 농가들에게 분쟁조정 취하를 종용하고 1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들로부터 취하서명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비협조 농가에게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알리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농가들은 일방적인 계약서 변경을 철회 하고, 농가협의회 집행부가 새로 구성되면 협의하여 계약서 변경을 결정해 줄 것과 계약변경 과정에서 계약을 해지한 농가 복귀와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농가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계약해지 등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회사의 약속을 강력

하게 요구했다.

분쟁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워지자 충청남도에서는 계열농가 자체적으로 농가협의회를 구성하여 9월 10일(화)까지 성화식품(주)과 협의 완료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다. 따라서 농가대표(김의겸, 양계협회 천안시지부장)를 중심으로 농가협의회추진위원회 구성에 들어갔으며, 9월 6일 천안 대전충남양계조합 사무실에서 협의회를 개최기로 하였으나 공교롭게도 회사측에서 충북 오창에서 긴급 지역회장단회를 소집하면서 회의가 무산되었다. 회사측은 이 자리에서 농가협의회 구성을 마무리 짓고 충남도

청에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가측에서는 농가협의회 구성 과정에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 14조 ①항을 들어 농가협의회 구성을 방해하고, 농가 스스로 농가협의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법적인 해석을 물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축산계열화사업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시의 정확한 판단과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로 상생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이 오히려 악용당하는 현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폭염피해 농가, 가축재해보험 폭염특약으로 보험금 평균 730여 만원 지급받아

## 폭염특약 발령되지 않더라도 폭염피해 확인 시 보험금 지급돼

올 여름에는 폭염으로 인해 많은 닭들이 폐사하면서 양계농민들의 주름살이 깊어만 갔다. 이렇게 고민에 쌓인 농민들이 폭염으로 인한 닭의 폐사에 대비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는 바로 가축재해보험 폭염특약이다.

농협손보 정책보험팀 이종찬 과장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양계농가는 전체 양계농가의 63%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1억 6,700여 마리의 사육되는 닭 중 1억

500여 마리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중 폭염특약에 가입한 농가는 84.5%에 이르고 있다.

농협손보 지급팀에 따르면, 폭염피해를 신청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농가는 전체 411개 농가이며, 9월 11일 현재 보험금이 지급된 농가는 211개 농가이고 나머지 200개 농가도 곧 지급될 것이라고 한다. 211개 농가가 받은 보험금은 15억 3,700여 만원으로 한 농가당 평균 73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가축재해보험 약관에 따르면, 폭염피해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는 폭염특보(폭염경보, 폭염주의보) 발령전 24시간(1일)부터 해제후 24시간(1일) 이내에 폐사되는 닭에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폭염피해 보험금은 35℃ 이상의 일최고기온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폭염경보와 33℃ 이상의 일최고기온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의 경우에만 해당돼, 31~2℃에 닭이 폐사하면 농가들이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이에 대해 농협손보 지급팀에서는 폭염특보가 내리지 않더라도 농가들이 폭염특약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농협손보

보험팀이 현장에서 조사를 마친 후 닭이 폭염피해로 인해 폐사한 것으로 확인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는 농민의 자기부담금 100만원이 넘는 폐사량을 원칙으로 하며 올해는 폭염특약 보험금 지급농가 중 10~20개 농가가 이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가축재해보험 폭염특약이 고온스트레스에 약한 닭의 폐사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만큼 내년에도 폭염특약 가입을 통해 폭염피해를 대비하는 농가의 지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한우에만 해당돼 타 축종 부당함 호소

## 축산환경 변화와 수입산 증가에 따른 다양한 농가 자원책 확대 절실

올해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및 폐업지원금 제도가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지만, 해당 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명확한 근거자료가 요구되고 있다.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축산물 가격이 일정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하

는 제도이다.

FTA피해보전직접지불 담당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직접지불금은 2012년 수입물량과 국내가격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65개 품목을 검토한 결과 한우와 한우송아지만 해당요건에 충족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한우(송아지)가 미 국산 쇠고기의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이 한우 24.4%와 한우 송아지 12.9%로 분석되었다는 것이다. 아

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법령상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폐업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한우(송아지) 농가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FTA이행에 따른 타 축종의 수입 감축분과 가격하락분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제시될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특정 품목을

사전에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수입물량과 국내 가격변화를 확인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지원대상 품목을 정한다고 밝힌 만큼, 향후에도 철저한 검증과 분석을 통해 피해를 입은 모든 농가에 고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처럼 시장개방 압력으로 점점 농가경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기를 살리는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길 기대해 본다.

# 농업전문 NGO '굿파머스' 창립

지난 9월 11일 서울 건국대학교에서는 전국 6개 대학 농대교수 10여명과 농민, 농업관련 기업인 등 30여명이 모여 지식

기반의 농림, 축산, 수산, 식품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개발도상국개발협력을 위한 순수민간봉사단체 'Good Farmers(굿

파머스)' 창립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Good Farmers'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농업을 전문 영역으로 하는 국제협력 NGO이며, 오는 10월 공식 창립기념식을 개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한다. 초대 이사장으로는 장경국 회장이 선출되었으며, 1단계 사업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우간다 등 개발도상국 빈곤층을 위하여 양계와 양돈 분야 개발협력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HOT ISSUE

# 한담인이 함께 하는 '제 1회 한담인 대회' 성대하게 치러질 예정

10월 10일, 천안 상록리조트서 개최...한담 사육농가 간 화합의 장 마련 기대



(사)한국토종닭협회  
김연수 회장

'제 1회 한담인 대회'가 오는 10월 10일(목) 13시~11일(금) 12시(1박2일) 천안 상록리조트 유스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닭협회 김연수 회장을 만나 이번 대회의 취지와 진행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재회 한담인 대회의 취지는 무엇인지요?'

본 협회는 그동안 축산 경제대국과의 FTA 체결, 생산비 급등, 농가 소득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종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토종닭 산업의 발전과 회원 및 회원사의 소득 증대와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는 협회 10주년과 (주)한협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그 의미를 더하고 한담인 모두 자축하는 의미에서 뜻깊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담인대회를 개최로 한담 사육농가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공통된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이번 대회에서는 어떤 일정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고병원성 AI 발생시기인 겨울철의 고병원성 AI 발생 방지를 위한 AI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한담인들에게 농가 AI 방역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정부의 AI 대응 정책방향을 소개함으로써 생산농가 스스로 방역체계를 갖추도록 해 고병원성 AI 발생 방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토종닭의 역사를 되짚음으로써 토종 종자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토종닭의 어제와 오늘 동영상 상영, 토종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회원과 양계사진 공모전 입상자 시상식, 한담 홍보대사 위촉식, 토종닭협회 BI/CI 선포식, 토종닭 비전선포 동영상 상영, 토종닭산업발전을 위한 결의문 낭독, 토종닭 종사자들을 위한 화합의 밤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창립 10주년과 농업회사법인 (주)한협축산의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만큼 한담(토종닭)인들에게 의미가 남다르다 할 것이다. 첫 해를 맞이하는 한담인 대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한국토종

일 시 : 2013년 10월 10일(목) 13시~11일(금) 12시(1박2일)  
장 소 : 천안 상록리조트 유스 대강당 (충남 천안시 수성면 수신로 576)  
주 최 :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주 관 : (사)한국토종닭협회, 농업회사법인 (주)한협  
후 원 :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계육협회, (사)대한양계협회, 농협중앙회  
문 의 : (사)한국토종닭협회 (☎ 02-3437-9906)

## 닭고기 산업 발전방안 연구결과 발표

닭고기 가격결정 체계 모순 지적

(사)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책임 연구원 김윤두 교수)은 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사)한국계육협회의 의뢰를 받아 지난 8월 '닭고기 산업 발전방안 연구'결과를 최종 발표하였다. 동 연구원은 국내 육계산업이 수입산 냉동 부분육 시장공략으로 국산육은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1.5kg의 소형

닭 위주의 생산으로 인해 부분육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수입닭고기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본 연구는 닭고기산업 선진화를 위해 닭고기 가격 결정체계, 수급관리, 산업통계시스템의 발전방향을 도출했으며, 정부정책제안(안)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는 닭고기 발전방안중 제시한 닭고기 가격 결정체계에 대해 계열화가 91%

임에도 계열화 사업자가 아닌 낮은 비중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생계가격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현 닭고기 가격결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계중심의 가격결정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닭고기 가격결정체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부분육 및 육가공 시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닭고기 수급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GPS-PS 단계에서의 물량조절이 효과적이며,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원종계의

과잉을 막고 무등록 종계장을 제도권에 흡수하는 방안을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각 기관별 통일성 부재, 통계정보의 부정확성 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닭고기산업 통계종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본 연구는 닭고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계열화사업자와 참여농가 간의 신뢰구축 및 동반자 관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더불어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협회의 사회적 책임(CSR)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2013년도 닭고기자조금 사업계획 변경 공고

2013년 닭고기자조금 사업 추진목표

- 농가가 참여하는 자조금 사업으로 양계경영관리의 안정화 및 전문 양계인 육성을 통한 육계산업기반 조성
-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산닭고기 소비홍보, 교육 및 정보 제공으로 안심한 먹거리 제공 및 정보전달을 통한 양계산업 인식전환

2013년 닭고기자조금 세입·세출 관련내용

(단위: 천원, %)

| 세 입  |           |      | 세 출     |           |      |
|------|-----------|------|---------|-----------|------|
| 구 분  | 거 출 액     | 비율   | 구 분     | 금 액       | 비율   |
| 농가거출 | 2,900,000 | 55.1 | 교육및정보제공 | 960,000   | 18.2 |
| 정부지원 | 2,363,000 | 44.9 | 조사연구    | 260,000   | 4.9  |
|      |           |      | 수급안정    | 1,155,000 | 21.9 |
|      |           |      | 대의원선거   | 50,000    | 1.0  |
|      |           |      | 소비홍보    | 2,010,000 | 38.2 |
|      |           |      | 징수수수료   | 12,500    | 0.2  |
|      |           |      | 운영비     | 198,500   | 3.8  |
|      |           |      | 예비비     | 617,000   | 11.7 |
| 합 계  | 5,263,000 | 100  | 합 계     | 5,263,000 | 100  |

2013년 닭고기자조금 사업 추진방향

- 양계농가의 자질향상으로 성공적인 닭고기자조금사업을 통해 농가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정보 제공 사업 추진
- 타 축종에 비해 미진한 R&D분야를 육성하여 생산비 및 질병 피해 절감함으로써 농가수익증대
- 자조금거출 홍보에 역점을 두어 자조금사업홍보 및 지역별 대의원활동 강화에 중점

2013년 닭고기자조금 세부사업 내용

- 교육 및 정보제공
  - 생산농가 자질향상 : 양계농가 HACCP 교육비 지원, 전국 양계인관련대회, 전국양계인 순회교육 및 토론회, 전국 양계인관련 교육 및 세미나, 전문 육계 CEO 과정 교육, 정책개발 세미나 개최
  - 생산 및 소비자정보제공 : 축산물전시행사, 구구데이페스티벌, 닭고기요리홍보 및 강습회, 닭고기요리경연대회, 자조금소식지 발행, 국산닭고기인증사업, 육용 종계노계육가치

- 의 소비자 홍보사업, 인터넷 정보제공, 양계사진공모전, 올바른 닭고기정보제공(지역별), 대의원활동 및 조직화 교육
- 자조금 거출활동 홍보 : 거출향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조사연구
  - 조사연구용역 : 국내외 양계관련 법 조사 및 활용방안, 해외도계 및 유통설비 개선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조사, 농가 및 계열화사업자 사용기자재 개선 및 대체재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 축사시설현대화사업관리비, 양계농가 사육/경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 수급안정
  - 수급안정 홍보 : 육용실용계 수급예측 사업, 토종닭수급안정사업, 종계감축을 통한 수급안정사업,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운영사업
- 소비홍보
  - 광고 : 온/오프라인 닭고기 소비홍보, 해외수출을 위한 소비홍보, 신문광고

위와 같이 2013년도 닭고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관련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

# 양계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한용현 당진육계지부장

## 제 2회 당진시축산인한마음대회를 가다



당진육계지부 한용현 지부장

지난 9월 4일 당진 삼교호 관광단지에서 제 2회 당진시축산인한마음대회가 개최되어 참가하였다. 현장에서는 당진지역의 축산단체가 모여 만들어진 축산단체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용현 당진육계지부장을 만날 수 있었다.

당진지역의 모든 축산업 종사자가 한 자리에 모여 단합의 기회를 삼고자 마련된 축산인한마음대회는 오랫동안 지역행사로 진행되어 왔었다. 그러다 지난해 당진군이 당진시로 승격됨에 따라 '당진시 축산인한마음대회'로 이름을 바꿔 올해로 2회를 맞았다고 설명한다.

개회식에서 한용현 지부장은 당진시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당진시 축산농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고, 시장개방 압력과 규제 증가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으나 축산인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난국을 해결해 나가자며 단합을 강조하였다.

행사의 의미에 맞게 많은 축산농가가 참여해 서로 안부를 묻고 축산물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고 있었다. 행사장에서는 개막식 이후 오후 시간동안 당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축산물 시식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약 1,500명이 참가해 당진시축산인한마음대회에 큰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당진육계지부회원들도 참여하여 다양한 닭고기 요리를 제공하고 국산 닭고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행사를 마치고 따로 한용현 지부장에

게 지부운영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다.

한용현 지부장은 당진지부장을 맡은 지 4년 정도 되었지만, 오래전부터 당진육계지부에서 활동해왔다. 당진육계지부는 육계농가 회원수가 50여명으로 비교적 소속회원이 많은 편이다. 그러다보니 당진지부 운영진도 항상 바쁜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용현 지부장은 축산단체협의회 회장을 겸임하며 바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운영진의 노력으로 육계농가들간의 단합도 잘되고 지부 활동의 참여율도 높게 유지되고 있다.

타축종에 비해 정책수립이나 지원사업에 있어 상대적으로 양계업은 지역에서 입

지가 낮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역에서 양계산업의 위상을 세우며 지도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한용현 지부장을 보니 그러한 생각은 그저 편견일 뿐이었다. 앞으로도 회원농가를 비롯해 육계농가의 권익보호를 앞장 서겠다는 한용현 지부장의 힘찬 행보가 기대된다.

(사)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 대리 이남희



현장에 많은 축산농가 및 관계자가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 육계질병가이드 / 곡시둡의 발생 및 증상

Q. 곡시둡증의 원인과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려주세요.

A. 곡시둡증은 온화하고 습도가 높은 지역이나, 봄철에서 가을까지 많이 발생하지만, 가축이나 가금 사육되는 곳이던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숙주 특이성이 강해서 자연숙주 이외에 다른 종의 동물에는 잘 감염되지 않으며 가금과 토끼에서 피해 정도가 가장 큽니다. 곡시둡 원충이 닭의 체내에 생활사를 완성하려면 6~8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층란 감염 후 4~6일 이전에는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3~6주령에 곡시둡증이 자주 발병하며 이때 증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일령과 상관없이 어느 시기나 발병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산란계의 경우 대추나 성계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계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끔 폐사율은 30%를 넘기도 하지만 요즘은 사양관리 기술이 개선되어 증상을 쉽게 발견하고 대부분 조기에 종료됩니다. 폐사의 대부분은 곡시둡 낭포체에 감염된 지 5~8일 동안의 기간 중 2~3일 만에 전부 나타납니다. 증

상이 나타나는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면 많은 폐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초기에 치료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마렉병(MD)이나 감보로병(IBD)에 감염되면 면역체계의 손상으로 인해 곡시둡증이 더 심하게 발병하기도 합니다.

곡시둡증이 발병하면 급성단계에서는 웅크리고 한기를 느끼며 급이 뒤쪽에 몰리게 됩니다. 감염된 닭들은 사료섭취나 음수섭취량이 줄어들게 되고 공통적으로 연변, 혈변, 점액질이 묻은 변을 배설합니다. 혈변이 관찰되기 시작하고 좀 더 진전되면 폐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곡시둡증이 발병한 계사에서는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나타나는데 이런 냄새로 곡시둡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심한 곡시둡증에서 살아남은 닭들은 대개 1~2주 이내에 식욕을 회복하게 되고 탈수로 인한 체중감소도 빨리 회복되긴 하지만 층아리가 발생하여 균일도가 나빠지게 됩니다. (문의 : juyoon@bansuk.biz)

<제공 : 반석 가금진료 연구소>

### (주)마니커, 1인가구 위한 양념육 판매 중



(주)마니커(대표이사 신계돈)는 핵가족화에 맞춰 조리가 간편한 양념 닭고기 조리식품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먼저 '춘천닭갈비'는 100% 국내산 냉장 닭고기로 만들고 있으며, (주)마니커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양념이 첨부되어 있어 조리가 간편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주)마니커의 '춘천닭갈비'를 구매해서 집안에서 조리를 하면 닭갈비 전문점에 못지않은 맛을 즐길 수 있다.

조리방법은 우선 닭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한 후 곁들여 먹을 야채와 고구마, 떡 등을 준비해서 손질한다. 다음으로 후라이팬을 달군 후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닭고기와 춘천닭갈비 소스를 먼저 볶다가 닭이 반 정도 익으면 불을 약

간 줄인 다음 준비한 야채와 떡 등을 넣고 볶아주면 집안에서 즐기는 '춘천닭갈비'를 먹을 수 있다.

'춘천닭갈비 매운 맛'과 '춘천닭갈비 순한 맛' 두 종류가 있으며 400g의 닭고기가 담겨져 있어 나홀로 가족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또 다른 제품은 양념육으로 '불고기용 닭다리살'이 500g으로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다. '불고기용 닭다리살'은 탄력이 좋고 육질이 단단하며 적당한 지방과 글리코젠이 함유된 넓적다리살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뼈가 발라져 있어 조리가 간편하며 맛이 일품인 매운맛 불고기 소스(135g)이 같이 포장되어 있어 초보자도 편리하고 쉽게 조리할 수 있다.

(주)마니커 관계자는 "최근에는 핵가족화로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간편식이 인기"라며, "그런 의미에서 (주)마니커는 1인 가구나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포장만 뜯으면 누구나 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닭고기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소식 양계관련단체 업무추진 활동**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농협목우촌 도계장 자조금 납입농가 현황**

**농협목우촌 도계장 납입농가 2013년 1월**

(단위: 원)

| 대표자        | 농장명  | 납부금액             | 주소         |
|------------|------|------------------|------------|
| 김의선        | 김의선  | 160,359          | 충북 음성군 음성읍 |
| 박경애        | 박경애  | 63,510           | 경기 양평군 지제면 |
| 박제면        | 박제면  | 116,886          | 충북 음성군 삼성면 |
| 김영철        | 김영철  | 58,425           | 경북 김천시 지례면 |
| 성운동        | 성운동  | 128,931          | 경북 김천시 구성면 |
| 조병기        | 조병기  | 91,407           | 충북 괴산군 문광면 |
| 윤성일        | 윤성일  | 126,177          | 경북 김천시 남면  |
| 성우동        | 성우동  | 75,405           | 경북 김천시 구성면 |
| 김은성        | 김은성  | 130,665          | 경기 양평군 강하면 |
| 송병만        | 송병만  | 108,915          | 경북 김천시 감문면 |
| 최병용        | 최병용  | 185,166          | 충북 음성군 소이면 |
| 신효정        | 부산축협 | 24,942           | 경남 밀양 하나읍  |
| 오세원        | 부산축협 | 28,896           | 부산 강서구     |
| 황봉서        | 연기축협 | 33,651           | 충남 연기군 소정면 |
| 영 천        | 영천축협 | 15,021           | 경북 영천시     |
| 안병전        | 평택축협 | 34,569           | 경기 평택 고동면  |
| <b>합 계</b> |      | <b>1,382,925</b> |            |

**농협목우촌 도계장 납입농가 2013년 2월**

| 대표자        | 농장명  | 납부금액              | 주소         |
|------------|------|-------------------|------------|
| 권오균        | 권오균  | 27,633 (27,633)   | 경북 칠곡군 기산면 |
| 김흥근        | 김흥근  | 179,712 (179,712) | 경북 김천시 개령면 |
| 임병동        | 임병동  | 114,633 (114,633) | 경북 안동시 북후면 |
| 박인규        | 박인규  | 79,047 (79,047)   | 충북 음성군 음성읍 |
| 김의선        | 김의선  | 172,782 (333,141) | 충북 음성군 음성읍 |
| 유승목        | 유승목  | 94,530 (94,530)   | 충북 음성군 소이면 |
| 지준익        | 지준익  | 87,903 (87,903)   | 충북 음성군 원남면 |
| 인 제        | 인제축협 | 29,547 (29,547)   | 강원 인제군 인제읍 |
| 이병규        | 괴산축협 | 23,097 (23,097)   | 충북 괴산군 증평읍 |
| 영 천        | 영천축협 | 14,451 (29,472)   | 경북 영천시     |
| 김성노        | 나주축협 | 21,642 (21,642)   | 전북 군산시     |
| <b>합 계</b> |      | <b>844,977</b>    |            |

**농협목우촌 도계장 납입농가 2013년 3월**

| 대표자        | 농장명  | 납부금액              | 주소         |
|------------|------|-------------------|------------|
| 김영철        | 김영철  | 152,835 (211,260) | 경북 김천시 지례면 |
| 박경애        | 박경애  | 61,527 (125,037)  | 경기 양평군 지제면 |
| 박제면        | 박제면  | 123,084 (239,970) | 충북 음성군 삼성면 |
| 배동호        | 배동호  | 73,875 (73,875)   | 경북 칠곡 지천면  |
| 조병기        | 조병기  | 84,114 (175,521)  | 충북 괴산군 문광면 |
| 최귀병        | 최귀병  | 122,703 (122,703) | 경북 김천시 지례면 |
| 안병전        | 평택축협 | 29,604 (64,173)   | 경기 평택 고동면  |
| 김근부        | 연기축협 | 31,848 (31,848)   | 충남 연기 서면   |
| 영 천        | 영천축협 | 15,267 (44,739)   | 경북 영천시     |
| 이창열        | 양평축협 | 36,054 (36,054)   | 경기 여주      |
| <b>합 계</b> |      | <b>730,911</b>    |            |

**(사)대한양계협회**



**본회, 한·중 FTA 규탄 성명서 발표**

최근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여전히 농축산업분야에 대한 보호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전하고, 양계산업을 책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강하게 규탄하였다. 특히 초민감품목을 전체의 10% 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 식량주권 포기한 한·중 FTA 1단계 협상 강력히 규탄한다!!!**

**초민감품목에 양계분야 집중시켜야**

한·중 FTA 7차 협상이 지난 6일 중국에서 끝나면서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정부는 한·중 FTA가 농축산업분야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이를 강행해왔고 한·미, 한·EU FTA 체결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협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는 한·중 FTA 협상에 따른 농가의 피해와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에 임해왔으며, 지금도 농축산인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양계산업에 있어서 한·중 FTA는 미국, 유럽과는 판이하게 다른 여건에 놓여있다. 거리상으로 가깝고 가격 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신선한 닭고기와 계란이 언제든지 수입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한 순간에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붕괴는 불 보듯이 뻔한 상황이다.

1단계 협상을 통해 정부는 전체품목의 90%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고 한다. 이는 국내 시장을 다 개방하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으며 나머지 단 10%만을 초민감품목으로 잡겠다고 하고 있으나, 그 품목수는 겨우 1,200개에 그치고 있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농축산품목들은 그동안 일궈왔던 터전을 중국에 헌납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량은 105~20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농수산물품목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여러 차례 한·중 FTA에 따른 농축산분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론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농가를 설득할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한·중 FTA에 농축산분야를 제외하거나, 2단계 협상에서 초민감품목을 농축산분야 특히 양계분야에 할당하여 농가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또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여 폐업보상금 지원 등 현실성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3년 9월 16일  
(사)대한양계협회

**국제축산박람회 - 육계(9/25), 종계분야(9/27) 대토론회 개최**

본회는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2013 국제축산박람회'와 더불어 양계산업의 현안을 중점논의하기 위해 각 분과별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분과별 토론회는 업계별 중점사항에 대한 주제발표와 이어진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계농가 및 업계관련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특히 본회 도지회 및 지부에서 단체로 참관할 경우 차량비가 지원(버스 1대당 30명이상 탑승조건)되므로 분과별 토론회일정을 참고하시어 박람회 참관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국제축산박람회 양계분야 토론회 일정**

| 구분     | 일시              | 장소        | 주요 토론내용                             |
|--------|-----------------|-----------|-------------------------------------|
| 육계분야   | '13.9.25(수)오후1시 | 엑스코내 314호 | · 계열화법 추진방향 논의<br>· 사육경비현실화, 농가협의회  |
| 채란분야   | '13.9.26(목)오후1시 | 엑스코내 314호 | · 계란유통구조개선 추진사항<br>· 발전적인 난기시세조사방안  |
| 종계부화분야 | '13.9.27(금)오후1시 | 엑스코내 313호 | · 종계부화산업 계열화 발전방안<br>· 종란납품단가 현실화방안 |

### (사)한국계육협회



#### 2013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참가



계육협회는 브랜드 페스티벌에서 국내산 닭고기에만 부착하는 '품질보증마크'를 홍보했다

의 닭고기 브랜드를 집중 홍보했다.

이날 본회는 닭고기 신선육 및 가공품 무료 시식회를 통해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전

#### 회원사 브랜드 홍보

본회는 지난 9월 5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홀 및 야외광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하는 '2013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에 참가해 회원사

달하는 한편 전단지 배포를 통해 국내산 닭고기와 수입산 닭고기의 차별성에 대해 알려주었다.

아울러 참가객들에게 국내산 닭고기에만 붙는 '품질보증마크'에 대해 홍보했다.

#### 제2회 우리농수축산물페어 참가



계육협회는 국내산 닭고기 가공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소비촉진활동에 나섰다

#### 한담인대회 준비상황 최종점검

본회는 지난 9월 5일~8일까지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 imbc 주최로 열린 '제1회 우리농수축산물페어'에 참가해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했다.

이날 행사에서 본회는 닭고기 홍보관을 마련, 국내산 닭고기와 수입산 닭고기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본회 회원사인 (주)체리부로의 처갓집양념치킨에서 치킨 무료시식회와 함께 국내산 닭고기 가공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등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 제6차 편집위원회 개최



제 6차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들이 '월간 닭고기' 편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 '월간 닭고기' 편집 방향에 대해 논의

본회는 지난 9월 3일 본회 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 6차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월간 닭고기' 편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편집위원들은 2012년 닭고기자조금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닭고기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난 만큼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10월호 특집으로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 (사)한국토종닭협회



#### 산담유통분과위원회의 개최



산담유통분과위원회가 산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보고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외에도 현재 토종닭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산담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 판매, 유통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

본 협회 산담유통분과위원회의가 지난 9월 3일 광주광역시 소재 한식당에서 열렸다. 최승호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지회장과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분과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양성화를 위한

도로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분과위는 광주 시내의 비아, 양동, 말바우시장 등 산담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을 순회하면서 소독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산담 산업 발전을 위한 행보를 이어 갔다.

#### 중계부화분과위원회의 개최



중계부화분과위원회가 한담인 대회 사업계획과 병아리 유통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는 이날 한담인대회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분과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후 분과위는 병아리 유통비 문제와 수급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병아리 분양 시 유통비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를

본 협회 중계부화분과위원회의가 지난 11일 대전광역시 소재 한식당에서 열렸다.

이사회에 상정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한담인 대회 후원 등 분과위 운영방안을 결정했다.

#### 이사회회의 개최

#### 한담인대회 준비상황 최종점검

본 협회 이사회의가 지난 23일 천안 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 매실에서 개최되었다.

오는 10월 10일 한담인대회를 앞두고 최종 점검 차 개최된 이번 이사회의는 김연수 회장 등 10여명의 이사가 참석해 한담인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먼저 협회는 한담인대회 추진 현황을

비롯하여 토종닭 세부추진규정(안), 주요 행사 등을 보고했다.

이후 안전 토의에서 이사들은 한담인대회 기획, 준비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협회 운영 방안들에 대해 의결했다.

Today's  
맛있는  
닭고기 요리

## 닭날개 콩조림

콩 속에 함유된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을 낮추며, 닭 날개살에는 피부노화를 방지하는 콜라겐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두 식품의 조화로 피부와 건강을 지키는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재 료** 닭날개 500g, 콩 75g(삶으면 250g 정도), 대파 1/2대, 생강 1쪽, 식용유 3큰 술, 콩 삶은 물 3큰 술, 청주 3큰 술, 설탕 2작은 술, 간장 3큰 술, 물엿 1큰 술

Cooking

1. 닭날개는 깨끗이 손질하여 끓는 물에 데쳐 건진다.
2. 콩은 물에 충분히 불려 삶아 건진다.
3. 파는 3cm 길이로 자르고 생강은 편으로 썰어 놓는다.
4.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뜨거워지면 파, 생강을 볶아 향이 나면 닭날개를 넣고 전체가 색이 나도록 볶는다.
5. 냄비에 ②의 콩과 ④의 재료, 콩 삶은 물을 담아 청주, 간장, 설탕, 물엿을 넣어 맛이 일정하게 들도록 아래 위를 뒤집어 조리한다.

〈제공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 퀴즈 날말맞추기

|   |   |   |    |   |   |
|---|---|---|----|---|---|
| 1 |   |   | 10 |   | 8 |
|   |   |   |    |   |   |
| 2 |   | 3 |    | 9 |   |
|   |   | 4 |    |   |   |
|   | 5 |   |    | 7 |   |
|   |   | 6 |    |   |   |

◇ 가로풀이 ✨ ✨

- 1 발레를 하는 여자 무용수
- 2 사진을 붙여 정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책
- 4 상대방의 정보나 형편을 몰래 알아내어 보고함, 또는 그런 보고
- 5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는 물건
- 6 토목 공사에 쓰는 중량이 큰 기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7 액을 당할 운수
- 9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도록 백지로 매어 놓은 책, 공책과 같은 말

◇ 세로풀이

- 1 비소화성 물질이 많은 원료에 미생물을 접종하여 그 균체와 원료를 함께 사료로 이용하는 것
- 3 여러 산이 겹치고 겹친 산속
- 7 액체로 된 거름
- 8 로켓이나 유도탄 따위를 발사할 때에 시작이나 발사 순간을 0으로 하고 계획 개시의 순간부터 시, 분, 초를 거꾸로 세어 가는 일
- 10 사람이 세상에 나서 살아온 햇수

56호 정답

|    |    |    |    |    |  |
|----|----|----|----|----|--|
|    | 10 | 10 |    |    |  |
| 공  | 10 |    | 10 | 10 |  |
| 10 |    | 10 |    | 10 |  |
| 공  | 10 |    |    | 10 |  |
| 10 | 10 | 10 | 10 | 10 |  |



## 양계 비법전수

### 지열을 이용하여 계사 난방 시 장점은 무엇인가요?

지열난방 시설을 이용하여 외부 기온이 영하 10.8℃인 한 겨울에도 계사 내부온도를 1주령에는 33.6℃, 3-5주령에는 22.7℃ 정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1일령에 관행난방 계사의 암모니아가스 농도는 55ppm으로 상당히 높은 반면 지열난방 계사는 35ppm으로 훨씬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주령에도 관행 계사는 40ppm으로 여전히 높은 반면 지열난방 계사는 14ppm으로 매우 낮은 상태를 유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료를 연소하여 열풍과 가스를 계사 안으로 불어 넣어주는 직접열풍기를 사용하는 관행난방 계사는 9일령까지 거의 5,000ppm 이상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이는데 비하여 지열난방 계사는 1,000~2,000 ppm 정도로 매우 낮게 유지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연료 소모량에 있어서는 4계절별로 시험을 완료한 후 50,000수(2,691㎡)로 환산하여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관행난방 시 27,382

ℓ의 경유가 소요되었으나 지열난방은 5,428ℓ의 연료를 소모하여 80%의 연료를 절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유해가스 농도가 낮아지면 서 출하체중도 좋아져 관행난방 5주령 때 1.9kg, 6주령 시 2.38kg인데 비하여 지열난방 계사는 5주령 2.0kg, 6주령 2.5kg으로 5%의 증체 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닭기르기 100문100답'〉

### AI 차단방역 철저

시 에 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기적 소독 필수

**농장주,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자를 철저히 통제
- ⇒ 계사출입시 발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생활화
- ⇒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가축시장, 부화장, 집하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의 방문 자제
- ⇒ AI발생국 여행 자제(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철저한 소독 및 교육 실시
- ⇒ 살충 및 구서(쥐잡기) 실시

**방문자 등 외부인**

- ⇒ 농장출입구에 '방역상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 ⇒ 발판소독조, 분무소독시설 설치, 운영
- ⇒ 외국인의 가금류농가 출입제한
- ⇒ 동물약품·사료·채혈요원 등 방문자의 사전 약속 및 청결한 의복·신발 착용
- ⇒ 계사 출입 시 깨끗한 방역복·장화를 착용하고 출입문에서 장화 침지 소독

**출입차량** ⇒ 모든 차량은 농장 출입구에서 세척 및 소독 실시

**AI의심축 신고전화(1588-4060)**